

# 첨단시설에 걸맞는 기술인력이 자랑

취재/이상건 <홍보부대리>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 영동지역 20만 평방미터의 대지위에 총 연면적 6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한국종합무역센터가 들어섰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우수상품을 일반에게 소개하고 이곳을 찾는 각국의 비즈니스맨과 우리나라간의 무역업무를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관광객을 위한 위락과 쇼핑환경을 함께 제공하게 될 이 센터는 무엇보다도 웅비하는 용의 모습을 표현한 55층의 무역회관과 17만여 평방미터에 이르는 국제규모의 종합전시장이 방대한 규모로 우리의 시선을 끈다. 이번호에서는 규모에 걸맞게 갖가지 첨단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한국종합무역센터의 종합전시장을 중심으로 방재시설을 소개한다.

• 개요

영동대교 남단에서 시작되는 영동대로와 올림픽 종합경기장의 길목인 테헤란로와의 교차점인 강남

구 삼성동 159번지에 위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는 6개의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의 중심이 되고 있는 무역회관은 지하2층 지상55층 연면적 11만 평방미터 규모로 무역상담과 각종 추천업무를 비롯, 제반 무역관련업무를 처리하는 유관기관 또는 지원시설을 한자리에 모아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무역의 총 분산이다. 따라서 이같은 역할을 차질없이 진행키 위해 빌딩자동화시스템과 정보통신망(L.A.N) 시설 등 첨단시설을 갖춘 인텔리전트빌딩이다.

또한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7만 평방미터의 종합전시장 본관은 전문전시와 상설전시의 복합전시기능을 갖춘 전천후 다기능전시장으로서 무역상담, 사무, 은행, 우체국, 통신서비스, 호텔예약, 영상 및 음향시설을 갖춰 명실상부한 국제교역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하4층 지상33층 연면적 15만여 평방미터의 호텔과 각

종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11만 평방미터의 컨벤션센터,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6만5천여 평방미터의 공향터미널,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7만3천여 평방미터의 쇼핑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모든 시설이 one-stop 서비스형태로 제공되어 바야흐로 국제적인 종합 무역유통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다.

• 건물 현황

종합전시장은 알미늄 판넬로 마감한 철근콘크리트건물로서 슬라브 또는 철골지붕틀에 유리 및 불소수 지강판을 얹은 구조로 되어 있다.

전문전시장과 진열전시장, 중앙통로부분은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였고, 전내장재는 석고보드 또는 스틸·알루미늄루바를 사용함으로써 완벽한 불연화를 실현했다. 또한 각 방화구획부분마다 1개 이상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점에 눈에 띈다.

소방시설로는 1424개 회로의 입

력회로와 728개 회로의 출력회로를 가진 R형수신기를 통해 각 소화설비와 연동토록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으며, 소화설비로는 준비작동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주 소화설비로 채택하여 하향식과 상향식헤드를 2중으로 설치하여 완벽한 소화기능으로 전시장 전구역을 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됐다.

이와는 별도로 옥내소화전의 방수기능을 보장하여 만일을 대비해 놓고 있다. 특히 이들 소화설비의 수원은 자연낙차와 중력탱크방식을 병용함으로써 정전시에도 확실한 소화기능을 유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컴퓨터관련시설 및 전기·통신설 등에 할로겐소화설비가 되어 있고, 충분한 양의 초기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 • 시설운영

이 센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4개과(건축, 전기, 기계, 방재) 127명으로 구성된 시설부에서 담당한다. 대부분의 보수업무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설부는 주로 기술관리업무 및 점검순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기술이 세분화되고 담당자들의 궁지도 높다고 한다.

따라서 경비원들의 시계순찰과 기술직원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시설 점검순찰을 통해 각 설비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체크하게 되며, 방재실에서는 불량개소의 보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체크리스트는 일별·월별·분기별·반기별로 구분되어 점검후 시설상태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원 상호간의 기술향상은 물론 시설의 미비점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기획전시장의 경우 부스나 전시시설물의 변경을 위한 목공이나 도장작업이 빈번하므로 이를 위해 전시장 시설지원팀을 별도로 조직, 작업준비단계에서 종료시까지 안전에 관련된 모든 감독과 필요한 조치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술직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도 연수를 하는 등 기술관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선이 기술부장은 『설계 및 건축단계에서 연소우려가 없도록 내장재를 불연화하였고, 만일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초기에 감지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출화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란 철저한 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에 모든 방재시설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담당자의 기술관리능력향상과 자세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한다. 이어 여부장은 『외국의 경우 건물의 용도나 규모, 위험도에 따라 시설기준이 코드(code)화 되어 있어 시설간의 호환성이나 기술정보의 교환이 용이하나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한다.

결국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우수한 인력과 보수시 충분한 기자재의 공급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작동될 수 있도록 잘 관리된 시설만이 화재발생시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성 있는 방재설비로서의 존재 가치를 재인정 받을 것이다.

오늘날 이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경제성장의 밑바탕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묵묵히 맡은 일에 전념한 숨은 노고가 있었음을 확인하며 『방재역군은 제2의 수출역군』이라는 김경탁 방재과장의 말에서 외양간을 튼튼히 해두어야 더 많은 소를 들여올 수 있다는 이치를 되새겨 본다. ☉

